
I. 전망 배경

- 2013년에도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.
 -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 통화/환율 정책으로 금융·부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환율 절하의 효과를 얻지 못하여 일반적인 경제회복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.
 - 재정적자는 축소하였으나 단일 통화/환율 정책 등으로 경제가 침체국면으로 진입함에 따라 GDP대비 정부부채 수준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음.
 -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될 경우 위기국들의 유럽연합 탈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.

- 미국과 일본의 재정문제가 심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최근 멕시코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서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재정 문제, 유로존의 경제 개혁정책 이행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, 신흥국가의 낮은 성장률 등을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음.
 - 미국과 일본의 재정문제 심화에 대해서 유로존 위기보다 더 큰 우려를 표명하였음.

- 국내 경제도 가계부채·기업부채, 주택 경기침체, 주요 선진국의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, 저성장·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.

- 가계부채와 주택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, 수출 증가율 둔화와 기업부채로 인한 투자부진 등이 지속될 전망이다.
 - 완만한 세계경제 회복으로 인한 수출 증가세가 2013년 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 - 2011년부터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하고 있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
 - 인구고령화도 잠재성장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.
 - 마이너스 GDP갭은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함.
 -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가 국고채 금리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, 마이너스 GDP갭 유지로 저금리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.
- 2013년 보험산업은 저성장·저금리 환경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다.
- 저성장·저금리는 보험수요 위축, 자산운용 수익률 악화로 인한 이차 역마진 확대 등으로 보험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생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경제 환경 악화로 신규수요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산업은 계속보험료에 의존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.
 - 2012년 보험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던 세제개편, 제도변화 등의 효과도 소멸함.
 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보험 상품에서도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음.
 - 한편,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 상향 조정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대비 수요로 개인연금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도는 둔화될 전망이다.

- 이에 본고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 및 보험경영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을 전제로 2013년 보험산업 관련 주요 성장지표와 환경변화에 대응할 경영과제를 제시함.
- 저성장·저금리 환경의 장기화가 전망되고 있어 보험회사의 경영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.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기되고 있는 금융에 대한 불신,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 등 사회환경 변화로 소비자보호·소비자 신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.
- 감독측면에서도 리스크 중심의 경영실태 평가제도 개선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임.